

퍼스트 스텝스 북한 사역 10주년

수잔 리치

지난 1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후원자들의 기도와 친절과 놀라운 베품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후원의 대부분은 평범한 개인 후원자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에서 나옵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누가복음 1:51-53

신속하고 너그럽게 베풀어주셔서 저희는 대두를 긴급 발송하여 콩우유 설비를 풀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발송된 대두(430톤)가 영양 부족분을 채우며, 8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일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우리가 사역하는 북한 지역의 식량 사정이 심각해지자 퍼스트 스텝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 구호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새참 시간

우리는 또한 빈혈과 구루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스도 지속적으로 보내 약 7만 명의 임신부 및 아기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창고와 선적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 보낼 현물 기증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비타민과 인스턴트 수프, 수제 담요와 뜨개 목도리 등이 든 기증품 컨테이너를 처음으로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보냈습니다.

400명 이상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원산 영아원에서는 지난번 태풍 피해로 지붕이 파손되었는데, 이번에 지붕 수리를 위한 자재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2011년에 2월, 5월, 7월과 11/12월,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팀은 필수 의약품, 분유와 클리닉케이스 등 기증 물자를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여 의약품과 비타민, 의료 장비 및 따뜻한 목도리를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퍼스트 스텝스 이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애써주신 안드레아 로즈 씨의 값진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돕고자 하는 소망

필 샤프란 시니어

우리 팀은 다섯 명이었고, 그 중 네 분은 북한 방문이 처음이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수하물과 배포 관리를 담당했던 제 아들 필 주니어, 의료품을 배포하신 의사 재니스 커크패트릭 박사, 그리고 로리와 랜디 사와츠키 부부였습니다. 사와츠키 부부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기관인 '헝거 리스폰스'의 대표로서, 이번 방문에서 사진과 설비 재고 관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물자 배포 감시 목적도 있었고 배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감시란 퍼스트 스텝스에서 최근 보낸 대두 80톤이 잘 도착했는지, 지시에 따라 고아원과 학교에 어린이 콩우유 제조용으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많았던 우리 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고아원 교장 및 의료원 원장님들에게 콩우유, 스프링클스, 클리닉케이스,

의약품, 분유 및 비타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들의 지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북한 측 담당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처럼 모든 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동기부여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스텝스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20곳 이상 방문했고, 마지막 이틀에 걸친 일정은 평양-원산 도로의 폭설 때문에 하루에 모두 소화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녁까지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방문 때마다 어린이들과, 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보육 담당자들을 직접 보았던 것이



원산 육아원 (고아원) 강 원장님. 퍼스트 스텝스의 대두 포대에 손을 얹고 계신 모습.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매일 급식으로 받는 콩우유와 콩 제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의 노래, 연주와 무용 발표회를 준비하여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재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북한 사역 10



바이타카우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콩우유.



갓 분쇄된 대두가 처리 후 캔에 담기는 모습.

주년에 즈음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 우리를 써주시고, 이 사역에 믿음을 갖고 임하는 충실한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조를 넘어 희망의 신호

필립 샤프란 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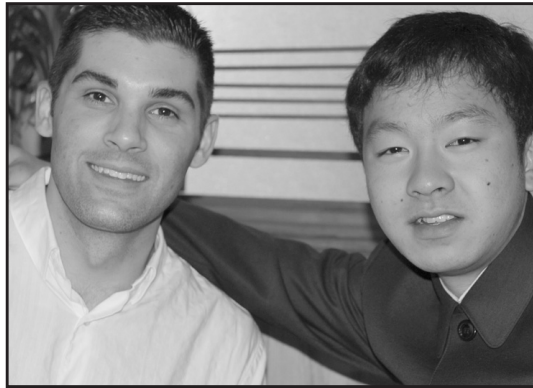
이번 방문은 제게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이 북한이라니 얼마나 흥미로운 첫 경험이지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하나로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주입된 해묵은 미움과 무관심이 슬픔의 담요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이드 중 한 분이었던 23세의 리현철이라는 청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바깥의 삶을 궁금해 하면서 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8살이나 차이가 나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웠습니다. 주로 행복에 대한 소망과 소명에 대한 의식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었습니다. 저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부분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았거든요!



바로 친구가 된 필 과 현철

저희 팀의 방문 목적은 일정에 나와 있는 퍼스트 스텝스 지원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북한에 몇 번 다녀오시고 어떤 것들을 예상해야 하는지 사전 정보를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낫다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그곳에 가보는 것은 수억 배나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우리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기 때문에, 퍼스트 스텝스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공장과 고아원, 학교를 방문한 것은 퍼스트 스텝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아직 그들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희망의 신호처럼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공우유를 제공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그냥 북한에 찾아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우유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남포의 영양결핍 어린이.

그런 마음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에 동참하는 엄청난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결의의 땅

로리 사와츠키

평양에서 동해안에 면한 원산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 차를 지나치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악지대로 가는 동안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눈은

이미 나무와 땅에 쌓이기 시작했지요. 산악 지대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는 벌써 십여 센티미터가 넘게 눈이 쌓여 있었고 도로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을 가지고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설차량이 없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로를 치우려는 결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도전이 많은 만큼 또한 맞서 싸워나가는 결의가 충만한 땅, 그곳이 북한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 이동하면서 본 주변 촌락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 후 며칠 동안 방문한 여러 고아원과 학교, 사무실과 공장이 거의 난방이 되지



사와츠키씨는 바이타카우 콩우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추워서 교실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불린 콩을 분쇄하고 있는 남포 작업반 직원

북한 농촌의 작년 작황이 비교적 좋았는데도 봄이 되기 전에 벌써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에서 그토록 중요한 단백질 제공을 위해 이들이 퍼스트 스텝스의 콩우유 급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을 뒤적이면서야 어린이들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서, 조명도 밝고 따뜻한 교실의 편안함을 모르고

일부가 정말 아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이타카우를 포함, 바이타고트 기계가 풀 가동 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2009년 쌀 모금 캠페인(Rice Raiser Campaign) 때 구입한 바이타카우도 그 중 하나였는데, 이 바이타카우는 한 공장에서 매일 콩우유를 2천 컵 이상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콩우유가 없다면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처럼 고립된 나라에서 퍼스트 스텝스의 사역이 높게



남포에서 갓 생산된 콩우유가 필터로 여과되는 모습.

평가되고 환영받는 모습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2012년 쌀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도 퍼스트 스텝스와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